

새 時代를 向한 看護의 理念



洪 麗 信

〈서울의대간호학과조교수〉

간호의 이념이 “질병간호”에서 “인간간호”로 진향되
이것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필자

우선 첫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 귀에 아주 낯익은 “인간간호” 혹은 “전인간호”란 개념입니다. 건강의 개념이 한층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부응한 간호이념도 “질병간호”에서 “인간간호”로 전향해야 한다고 주장된 것입니다. 일정한 병리현상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는 질병과정을 밝게

오늘 저는 새시대를 향한 간호의 이념이란 제목을 갖고 이자리에 섰지만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할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온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으로 우리들 뇌리에서부터 우리들 마음으로 번지는 이념으로 화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편의상 이 시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계의 중심되는 사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되는 질병에 대한 간호에 비해 인간을 간호한다는 것은 그렇게 평범적일 수 없는 아주 다른 차원의 간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시도 어떤 정적인 상태에 머무를 수 없는 항시 변화 속에 사는 개체로서 그때 그때의 내적 외적 상황들이 그 개체의 시각의 성격(상태)을 결정짓는다고 볼때 그러한 인간을 직접 관여하는 간호가 감당해야 할 도전이란 여간 크고 다양한 것이 아닐 것이란 사실이 자명해 집니다. 인간을 간

호한다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및 시공간적 위치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및 영적인 상태를 총괄하여 간호의 대상을 살아야 할 것이고 인간 간호의 참뜻이 실현되기 위해선 현사회와 현대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 간호”의 논리적 근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질병의 정신 신체적 요인설 외에 현대에 사는 인간들의 특수한 요구라 봅니다.

인간성 상실로 특징짓는 현대인의 병은 고독, 공허, 권태와 무의미, 그리고 인간본연의 자세에서 행위하고 느끼는 자신을 시시각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자기소외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이러한 비인간화 과정은 인간과 생신수단의 유리, 고도의 기계문명이 인간의 창의적 역량대신 준 기계의 역할을 요구한다는 점, 가치체계의 변화가 시장화 경향을 따르고 있다는 점과 나와나의 인간관계의 단절 및 종교적 철학적 생명관에서부터 물질적 과학적 생명관으로의 전도등에 기인한다고들 말하며 이들 사회현상은 짧은 시일 안에 수정될 수 없을뿐 아니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하는 추세속에서 더욱 더 병적인 상태로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엘리올」의 시속의 Hollow man 은 짊으로 채워진 머리들을 서로 기대어 지탱하고 「니체」의 자기불애의 사람들은 자신을 찾기위해 이웃을 찾고 이웃은 또 즐거히 자기불애를 만들었고 자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을 communicate 할 Personal language 를 잃고 모두 소외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도계 안에서고 고도의 지식, 기술의 발전 및 많은 기계의 도입은 의료의 다양화를 낳았고 세분되는 전문업화의 경향은 다시 한번 인간이란 개

체를 수없이 많은 조각으로 나누어 총화된 개체의 Self-image 를 흐리게 하고 의료계내에 단 한 사람도 “나를 위한 사람”으로 접근할 수 없는 관계부계의 지대로 화하게된 이 시점에서 자다가 다 같이 인간성 회복의 중요성을 주창하게 되었고 이러한 작업에 선봉을 서서 인간성 회복및 보존에 일차적 책임을 무리없이 맡을 수 있는 역군이 바로 간호원들이라 보고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간호는 인간이 처할 모든 상황에서 인간화 개별화의 기저를 늘인 참 인간간호의 구현을 보아야했고 이를 위해선 간호원들의 적극적인 정 있는 참여와 개방적이고 진실된 언어의 구사를 통해서만이 인간과 인간사이의 거리, 전문 직업인과 그들의 client사이의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하고 싶은 개념은 “질병중심적 간호”에서 “건강복지를 지향하는 간호 이념”입니다. 먼저도 말했듯이 “인간 간호”는 병중에 있거나 건강하거나 가정에 있거나 학교, 산업장, 혹은 병원에 있거나 또 어떠한 연령층에 속해 있거나 모든 처지와 모든 상황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에 관여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분명 간호의 방향은 급성적 질병과정에 중점을 두기보다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통한 개인의 복지 증진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란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자명한 일이지만 점차로 병원 이 더 intensive care facility로 바뀌어가고 입원 규모의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간호할 책임이 무거워지는 반면 효과적인 Self-care 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어가는 현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론 누구나 스스로의 의지와 결의에 의해서만 건

정한 행위의 변화를 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아 질병치료 전강보존의 일차적 책임을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지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보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전강증진 복지증대의 간호이념은 그 타당성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 봅니다. 실질적으로 간호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간호현장이 옮겨져야 하고 그들이 지닌 문제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 밖에서 찾아가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병원의 서비스를 동하기보다 예방적 전강증진적 체계 계획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질때 병원중심, 질병중심적 간호에 머물러 있다면 분명 간호는 그 사회적 효능을 상실하고 그 본래의 존재 의미를 잃게 되리라 보고 보아지며 병원으로 그 무대를 국한하는 한 간호의 독자적 기능의 현실화는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 사회적 현실 즉 국민소득의 증대, 가족구조의 변화, 연장된 평균수명에 따른 인구, 노쇠화 현상 및 증가되고 있는 정신신경증 분례등 모두 전강복지물 향한 간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하는 현실이라 봅니다.

이러한 미래를 향한 간호이념이 구현되기 위해선 종래의 질병과정 중심의 간호교육 형태를 벗어나 적극적인 전강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져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질병을 중심으로 배우고 있는 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도 질병이 없는 상태로 이끌어 가는 점에 그치게 될 것이고 현대의 전강개념이 말하는 복지상태의 구현이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간호원들이 개인의 건강분례를 대할때 어떤 질병이나 예사지작하기보다 어떤 전강수준에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여 그 개인에게 가능한 최고수준의 전강을

독적 삼을 수 있는 전강중심(wellness-oriented)의 교육으로 방편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개인간호”에서 “대집단 간호”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진정 인간을 간호하고 복지증진을 목표로 한다면 가정과 지역사회처럼 자연스런 간호현장은 없다고 봅니다. 전병과정중에 있는 개인에 대한 집중적인 간호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적은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서 구할 수 있는 병원밖의 인구에 관심을 모아야겠읍니다. 오늘날처럼 공해문제, 인구문제, 청소년문제등 종래의 일반위생, 보건문제에 전쳐 많은 분례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한 때도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종래의 1대1의 간호형식은 간호할 대상의 크기로 보아 적이나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고 집단간호는 집단내 천화력으로 간호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구가 있는대로 지식과 의지와 힘과 사랑을 갖고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배운지식과 쌓은 훈련을 통하여 독자적 행위자로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크게 공헌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정있는 이웃으로 시작하여 교육, 보도, 상담, 자문등의 역할을 통하여 지역사회 보전에 대한 지휘수첩 진반에 이르는 참여로서 변화하는 새시대에 뒤지지 않는 타당하고 진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겠읍니다.

“인간간호”를 통하여 인간성 회복에 앞장서야 겠고 모든 상황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간호인력과 사회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효과적인 과업수행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겠읍니다.